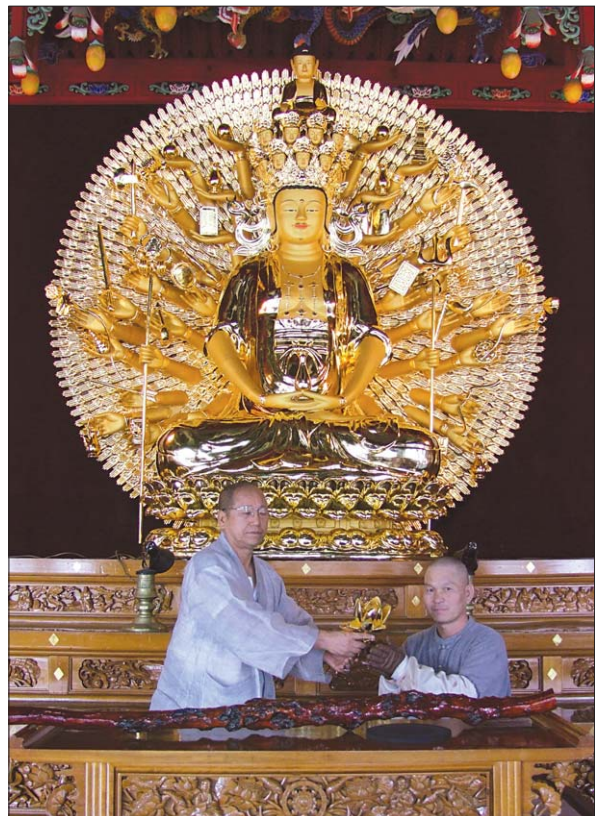


부산 해운정사, 불자들 발길 줄이어

원통보전 천수천안관세음보살 황금불사 원만회향해



◇ 2008년 8월 부산해운정사 원통보전 '천수천안관세음보살' 황금불사 중진제스님(좌)과 청호스님

신심 담아 황금불사 이룬 청오 스님

진제 큰스님과의 각별한 인연인 청오 스님(거창 달마사 주지, 청다향 대표)은 부친 故 김영인 거사와 불상조성에 동참한 이래 이번에는 황금불사까지 진행을 맡았다.

청오 스님은 "1987년 진제 스님과 아버지가 조성한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이었다. 이제는 아들이 황금불사를 맡아 감개가 무량하다"며, "진제 스님의 원력이 있었기에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에 신심을 담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청동불, 최초의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상 조성을 위해 청오 스님은 아버지와 20여년전 진해 불모산(佛母山)에 터를 잡고, 진해 앞바다에서 직접 짚어 나른 진흙으로 용광로를 만들어 불상을 조성했다.

스님은 "시뻘건 쇳물을 파나를 때는 조금만 실수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목숨 따위가 신심을 막을 수는 없었기에, 15척 규모의 청동불을 조성했다"고 회상했다. 故 김영인 거사와 청오 스님은 통도사 보광전, 범어사 내원암 등 수 없이 많은 청동불을 만든 불모(佛母)다. 천연향인 청다향을 만든 빈뜰이는 아이디어는 불상조성 때부터 있었다. 청도 보현사에서 법당이 아닌 옥외에 봉안한 부처님을 국내 최초로 개금했다. 김 거사는 기공관음, 어린 동료들과 안고 있는 포대화상 등 많은 불교예술 도안을 선보였다.

스님은 "아버지와 불상 조성 중 밤마다 꿈에 신장이 찾아와 불상의 잘못된 부분을 손으로 만져줬다. 잠을 깨고 살펴보면 틀림없이 그 부분은 잘못돼 있었다"며, "이번 황금불사에도 밤마다 바람을 짚어진 스님들이 잘못된 곳을 지적해줘 원만회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진제 스님과 부산 해운정사는...

경허-혜월-운봉 선사로 이어진 불조정맥을 이어받은 향곡 선사(1912-1978)는 1967년 진제 큰스님에게 심인법을 부촉하며, "네 대에 선공이 크게 흥하리라"고 예언했다. 이후 진제 큰스님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임제(臨濟) 법맥을 이을 법제자를 양성하기 위한인연터를 찾던 중, 해운대 장수산에 이르렀다. 태백산맥이 굽이쳐 내려와 장중한 기운이 맺힌 것을 본 큰스님은 산의 모습이 장려(壯麗)하고 진중(珍重)해 '수행자들의 최상의 공부터'라 간파하고 1971년 해운정사에 터를 잡았다.

해운정사는 중생 교화에 더없이 좋은 곳으로 장수산 뒷 모습은 거대한 코끼리 형상을 하고 있고 해운대에서 바라보는 앞모습은 새끼를 품고 있는 암사자의 형상을 하고 있어 위대한 인물이 끊이지 않고 나올 터로 알려졌다. 또한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하고 앞으로는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어 명당 중의 명당으로 손꼽힌다.

진제 큰스님의 '참나'를 밝히는 참선 지도에 따라 해운정사에서는 세 곳의 선방에서 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화두일념을 지속시키려는 열기가 가득한 한국 제일의 참선도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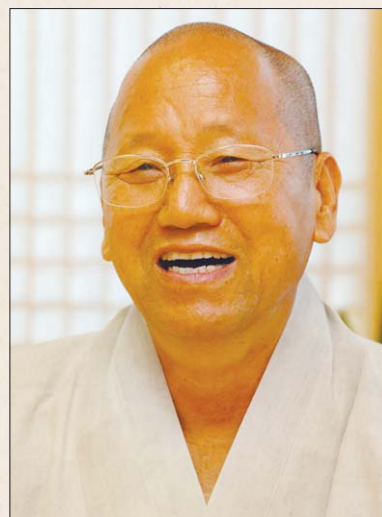
매월 음력 초하루와 18일 지장제일에는 법회가 열려 진제 큰스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다.

부산 해운정사 전화 (051)746-2256 팩스 (051)741-8882



■ 진제 스님 법어

모든 대중께서 일상생활 속에 참선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의 보검(寶劍)을 갈고 닦아서 천하 제일가는 보배갈을 완성하게 됩니다. 보검을 완성하면, 다견생에 쌓인 중생의 업식(業識)의 무명초(無明草)를 한칼에 다 베어 없애고, 못 성인의 대열에 들어서 지혜의 보검으로 자웅(雌雄)을 겨룹니다.

옛 도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빈한하게 살면 지혜가 짧음이고, 말이 어려워 털이 깊어집니다."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잘 살 수도 없고 출세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유산과 높은 자리를 넘겨줘도 지키지를 못합니다. 밝은 지혜가 앞서면 세상의 부(富)와 높은 지위는 생각만 내면 내 것이 됩니다.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참나'를 밝히는 참선수행을 꾸준히 연마하십시오. 밥을 지으나, 빨래를 하나, 농사를 지으나, 산책을 하나, 잠을 자나 오매불망(寤寐不忘) 간절히,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 라고 말합니다. 이 몸뚱이는 빈부, 귀천, 노소를 막론하고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지 못하면 그만 썩어 냄새나서 화장(火葬)하고 묻어버리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몸뚱이는 참나가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몸은 결국 백 년 안에 다 무너져 썩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몸 부모에게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입니까?

정말 참나를 모르고 백년을 산들 아무 값어치가 없습니다. 이 참나 가운데 모든 부처님의 진리가 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참나를 아시어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고 역대의 도인스님들도 그러하셨습니다.

금일 이 법회에 참여하신 모든 대중께서도 일상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 하고 시냇물처럼 화두가 밤낮으로 한 모양으로 흘러가게끔 오매불망 간절히 참구하십시오. 화두 의심 한 생각이 밤낮으로 쭉 흘러가는 여기에 깨닫는 문(門)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두를 참구하는 사람은 부지기수인데 왜 도를 증득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참선을 한다' 해도 혼침·망상에 시간을 다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시냇물과 같이 밤낮으로 한 모양으로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야 합니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 라는 간절한 의심이 끊어지지 않고 무르익으면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있어버리고 앉아 있어도 낯인지 모르게 됩니다.

이렇게 한 생각에 몰두해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흐르다가, 홀연히 보는 참나, 듣는 참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면 자기의 참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천불(千佛) 만조사(萬祖師)와 동일한 진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너도 장부요 나도 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부처님법에 있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2005년 5월 7일 범어사 설선대법회 회향법어와 무차선법문 中 발췌)

“부처님께 공양 올릴 향 만드는 것이 수행” 청다향 만든 달마사 청오 스님



"산천 초목의 풀잎과 꽃잎에 가득한 향을 따는 순간 느껴지는 상큼함. 그 순간을 잡고 싶었습니다" 덕유산 자락 산전을 누비며 사시칠 꽃잎을 따는 향에 미친 스님이 있다. 얼마나 꽃잎을 따 뺨고 찡기를 반복했을까. 한겨울에도 땀으로 온몸이 젖으며 겪은 오랜 시행착오 끝에 청다향 천연 향 제품을 개발한 이는 청오 스님(거창 달마사 주지·사진)이다.

열세살 때 대구 정혜사에서 정각향 창시자인 故 송정도 운으로부터 향만들기를 배웠지만 향 만들기를 포기했던 스님은 어느 날 일

간지에서 "태우는 향이 담배연기보다 더 나은 유해물질을 배출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다시 향을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스님이 만드는 향은 수십가지 야생천연재료를 인체에 전혀 무해할 뿐더러 효과가 좋다. 얼마 전에는 이광근 교수(동국대 식품공학과의 도움으로 성분분석까지 마쳤다. 이 교수는 "청오 스님이 만든 향은 아로마테라피 형식으로 분석결과 천연재료의 각 성분을 잘 살렸다"고 말했다.

숙·아카시아·박하·술일 등 덕유산 자락의 모든 초목을 향재료로 사용한다는 스님

은 "아카시아는 개화 후 2~3일 안에 채취해야 하고, 술잎은 한겨울을 눈 내린 뒤 채취하는 것이 좋다. 풀잎마다 꽃잎마다 채취시기가 정해져 있다"고 말해 재료 채집부터 보통 정성이 필요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10ml 한 병의 예기스를 증류해 얻기 위해 한가마니의 풀잎이 필요하다는 스님은 순수 재료를 채취하고 향을 만든다고 한다. 또 향을 발산하기 위한 청자로 된 향로까지 모든 것을 직접 제작한다.

부처님께 올리는 향을 만드는 것이 수행이며 공부라는 스님은 "공양 중 향 공양이 으뜸

아니겠냐"며 제대로 된 우리 향을 통해 불자들의 건강과 신심을 북돋고 싶다고 말했다.

<현대불교신문> 2008년 3월 5일 보도기사

■ 9월 30일까지 향로 보시

자연향이 피어나는 인등향로(20~30만원 상당) 1세트를 9월 30일까지 선착순 33분에게 보시합니다.

청다향 전화 : 055)941-1083
팩스 : 055)941-1084